다양한 양육자 간의 협력

1편



양육자가 많은 우리 아이,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요?

교육부 대구광역시교육청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이 시기, 부모님들의 고민을 모아봤어요.

처음 유치원·어린이집에 보내다 보니 **적응**이 걱정돼요.
집에서 도와주고 싶은데, 선생님과 어떻게 맞춰야 할지...

조부모님이 아이를 잘 봐주시긴 하는데, **양육 방식이 달라서**
자꾸 갈등이 생겨요. 점점 버릇이 나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양육을 도와주시는 이모님도, 조부모님도 계시는데,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오히려 더 불안하고 힘들어요.

일을 하니까 아이에게 생기는 일들을 전부 알 수가 없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양육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까요?



3세가 되면...

아이는 처음으로 부모 외의
어른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누가 아이를 돌보는가'보다,
'**양육자들이 얼마나 협력하는가**'입니다.

양육자의 일관되고 따뜻한 반응은
아이에게 '**나는 존중받는 존재**'라는
안정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몇 명의 어른들이 우리 아이를 돌봐주시나요?

일상을 떠올리며
나를 도와주는 다양한 양육자를
모두 적어 보세요!



총 몇 명인가요?

☐ 명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 없으면 집이 굴러가긴 할까?'

나 혼자 책임지는 양육.

- ☐ 아이의 일상 루틴(잠/식사/배변 등)을 나 혼자만 정확히 알고 있다.
- ☐ 내가 아프거나 자리를 비우면 아이가 잘 지낼지 걱정되고 불안하다.
- ☐ 아이가 무조건 나만 찾는 것 같고, 때로는 버겁게 느껴진다.
- ☐ 배우자, 조부모님 등이 있어도, 결국 내가 다 챙겨야 마음이 놓인다.

공감하는 항목을 체크해 보세요!

혹시... 이런 생각도 드시나요?

‘도대체 누구 말을 따라야 하지...?’

나도 아이도 헷갈리는 양육.

- ☐ 양육자마다 같은 상황에서 대처 방식이 다르다.(간식 줄 때, 울 때 등)
- ☐ 양육자마다 말투나 훈육 방식이 달라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 ☐ 아이가 양육자에 따라 말을 잘 듣거나, 버릇없을 때가 있어 고민된다.
- ☐ 다양한 양육 상황마다 누가 결정을 내려야 할지 눈치 보게 된다.

공감하는 항목을 체크해 보세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들...
우리 집 같다고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양육자 간 역할과 기준을
점검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양육 협력은 단순한 역할 분담이 아니라,

양육자 간의 인식과 실천을
일관되게 조율하는 것입니다.

작은 조율들이 모여
아이의 양육 환경을
안정된 울타리로
만들어 줍니다.

양육자의 협력은
아이의 '자존감의 기초'가
됩니다.

배우자와의 양육, 어떻게 맞춰가면 좋을까요?
다음 편에서 함께 살펴보아요.

교육부 대구광역시교육청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